

KOCHAM

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5년 5월 8일(금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물가상승 목표, 상향 검토
- 2) 미국 대학, 전공 따라 평생 소득 천차만별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파운드화, 출구조사 이후 가치 상승
- 2) 중국 수출 또다시 감소, 경제 성장 적신호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우버, 노키아 지도서비스 인수전 참여
- 2) 중국, 알리바바 성장둔화 우려 딛고 좋은 실적 발표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물가상승 목표, 상향 검토

- 지난 5일 블룸버그통신은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물가상승(인플레이션)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고려중이라 보도
 - 대부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위기와 잇단 경기침체에 대응, 인플레이션률 목표를 2%로 잡았지만 G7 가운데 캐나다만 목표에 도달
 - 반면, 그 대안으로 현재 대개 2%인 인플레이션률 목표를 4%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 제기
- 스탠더드생명 투자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목표 상향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, 실질 금리 인하 및 경제성장에 작용한다고 언급
- 한편, 지난달 IMF 회의에서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목표 상향이 자칫 물가를 통제 불능 상태로 몰고 갈 수 있으며 중앙은행 공신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

2) 미국 대학, 전공 따라 평생 소득 천차만별

- 지난 7일 WSJ는 대학 전공에 따른 소득 격차가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간 소득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
 - 미국 조지타운대 교육인력센터가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를 분석해 낸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는 평생 경력기간 (25-59살)에 걸쳐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보다 100만달러 (약 10억 9천만원) 이상의 소득을 가지지만 대졸자 사이에서 전공에 따른 소득 격차는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

- WSJ는 일련의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최근 대학교육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
 - 미국에선 고용시장이 아직 대졸자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이 또 다른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
- 한편, 대학 전공 중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전공은 이른바 ‘스텝’ (STEM)으로 불리는 과학(Science), 기술(Technology), 엔지니어링(Engineering), 수학(Mathematics)이며 그 다음으로 보건의료 및 경영 전공이 있고 반면 사회과학, 인문 및 예술 등은 평균치보다 낮은 결과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파운드화, 출구조사 이후 가치 상승

- 지난 7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총선 후 출구조사에서 데이빗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우세를 보이자 파운드화가 뚜렷한 강세를 나타냈다고 보도
 - 이날 영국 BBC 등이 집계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노동당은 전체 650석 중 316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한 반면 노동당은 239석을 차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
- 또한, 출구조사 발표 이후 파운드화는 달러화 대비 1.05% 가량 상승, 유로화 대비 1.3% 가량 상승
- 한편, 캐나다왕립은행(RBC)의 외환투자전략가는 설문조사에 앞서 보수당이나 자유민주당이 기대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 과반 의석에 가까워질 경우 파운드화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 전망

2) 중국 수출 또다시 감소, 경제 성장 적신호

- 지난 8일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 수출이 4월에도 감소세를 보이며 성장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
 -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이어졌던 위안화 절상이 중국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혔을 뿐 아니라 중국 당국이 통화절하에 합류해야 한다는 압력이 더 커졌다는 진단
- 또한, 위안화 기준 4월 수출입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며,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
 - 수입이 예상 이상으로 감소하고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% 증가한 결과,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
- 한편, 향후 중국의 수출 전망도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올해 2분기 인민은행의 추가 금리인하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우버, 노키아 지도서비스 인수전 참여

- 지난 7일 뉴욕타임스는 우버가 노키아의 지도 서비스인 ‘히어(Here)’의 인수 제안을 제출했다고 보도
 - 우버가 제시한 인수는 30억달러로 추산되며 지난달 노키아가 히어의 매각 의사를 발표 후 독일 자동차업체들과 중국 검색엔진 업체 바이두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인수를 추진 중이며 노키아는 이달 말까지 인수자를 발표할 계획

- 이번 인수전은 디지털 지도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방증이 되고 있으며 페이스북,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도 앞서 히어의 인수에 관심을 표한 바 있음
- 한편, 노키아에 따르면 히어의 작년 매출은 11억달러 수준에 이르며 시장조사업체 오범의 연구원은 구글을 제외하면 히어는 이 같은 정보를 바로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 중 하나라고 언급

2) 중국, 알리바바 성장둔화 우려 딛고 좋은 실적 발표

- 지난 7일 알리바바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5% 증가, ‘짜퉁’ 논란과 성장 둔화 우려에 반하는 실적을 발표
 - 같은 기간 알리바바의 순이익은 49% 급감했지만 조정 주당순이익(EPS)은 48센트를 기록해 예상치를 상회
- 또한, 알리바바는 지난해 9월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250억달러(약 27조 7천억원)의 기업공개(IPO)를 성사
 - 하지만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(SAIC)이 1월 알리바바가 타오바오몰에서 ‘짜퉁’ 상품을 유통한 것을 적발하는 백서를 발간한 데 따라 기업이미지에 타격
- 한편, IPO를 전후로 임직원 수를 급격히 늘려왔던 알리바바는 ‘고용동결’을 선언